

원효스님의 사상과 삶의 현대적 재조명 두 번째 이야기 — 채희완 연출

폭포속에서 꽃잎을 물린다



2004년 12월 21일(화) ~ 23일(목) 하오 7시 30분 | 민주공원 작은방

| 주최 : 채희완마당극패, 민주공원 | 주관 : 민족미학연구소, 극단 자갈치 |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민예총 |

이 작품은 1996년 5월 16, 17일 이틀에 걸쳐 경주 분황사, 황룡사지, 경주 시내 일원에서 원효스님의 사상과 행적을 기리는 「원효문예 대제전」 중 행사의 총체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작품으로 공연되었던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 이후에 새로이 창작된 원효스님 무애가무행 제2탄입니다.

“폭포 속에서 꽃잎을 물고 늙다”

원효가 신라시대 왕실중심의 귀족불교를 타파하기 위해 저자거리에서 행했다는 무애가무를 오늘의 현대 삶속에 담아내면서 또 한편 배움의 길에 들어선 자의 행로를 엿보는 명상 액션 마당극입니다. 무애가무행은 원효가 우연히 한 광대가 괴상한 박을 가지고 춤추는 광경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 광대복장을 하고 “모든 것에 거리낌이 없을 때 한 달음에 생사를 초월한다”는 내용의 불교이치를 노래로 지어 부르며 춤추고 다닌 행적을 가리킵니다. 첫작품인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 이후 극중 인물인 선재의 성장과 더불어 육신의 변화와 함께 마음의 내면을 성찰하는 계기를 이룹니다. 노스님의 다비식 때 여인과의 육신을 나누는 ‘불꽃 깨달음’은 요석공주와의 합방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나를 찾기 위한 또 다른 배움의 행로입니다. 또한 그것은 결국 ‘나를 버리기’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 나서지만 커서는 나를 찾습니다. 그래서 가혹한 몸의 시련이 따릅니다. 교내 폭력, 오토바이 폭주, 파출소 출입 등이 그것입니다. 그것의 또 다른 절정으로서 자신을 길러준 노스님의 입적을 통해 여자와의 첫 접촉 속에서 육신의 깨달음은 꽃잎이 됩니다.

이 작품의 논리적 배경은 원효사상의 화쟁(和諍)입니다.

가와 나가 다투되 전체를 감싸 안는, 부딪치도록 내버려두면서 큰 통 속에서 얹히게 만드는, 변증법적 통일이 아니라 변증법이 되 자기의 성질을 지니면서 서로 얹혀드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 여자와 남자, 엄마와 엄마 아닌 것이 아우러져 교차하는 행로 또한 그러한 길로 나선자의 쉽 없는 배움의 도정입니다.

특히 청소년시기, 이들에게 교회, 이들에게 절은 무엇인가?

이들에게 소년, 소녀의 순결과 엄마와 여성의 품은 무엇인가?

육신과 영혼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이들에게 무엇이 힘과 사랑과 의리와 폭력과 우정에 몸을 던지게 하는가?

작품 줄거리

열다섯이 된 선재는 어릴 때부터 홀로 자라 거닐던 경주 시내를 벗어나 낯선 중소도시에서 중학생이 되어 폭주족으로 밤거리를 헤맸다. 물난리통 속에도 폭력사건 당사자로서 옛 절집 노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합니다. 여러 갈래 길에서 방황하다가 이윽고 노스님의 다비식 현장이 멀리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옛 보살 같은 여인의 몸속에 들어가 스스로 몸을 다비하듯 불태웁니다.

몸에서 뿜어 나오는 피, 땀, 눈물, 체액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폭포 속에서 꽃잎이 됩니다.

첫째마당: 뚝방 밤길

둘째마당: 비빔집 앞 / 물난리

셋째마당: 교회 골목길 / 청소년 문화의 초저녁

넷째마당: 다비식 꽃잎

다섯째마당: 뚝방 새벽길



이 미 건너가야 할 저쪽 언덕이 없는데,
어찌 떠나가야 할 이쪽 언덕이 있으랴.

既無彼岸可到
何有此岸可離

[열반종외]

고 요히 비춤은 밝음도 없고 밝지 않음도 없다.
어리석음의 어두움 없애면 지혜의 밝음 얻는다.

寂照無名無不明
謳滅癡闇得慧明

[지눌, <원돈성물론>]

웃 을 기울 때는 짧은 바늘이 필요하고,
긴 창이 있어도 그것은 소용없다.
비를 피할 때는 작은 우산이 필요하고,
온 하늘 덮는 것이 있어도 소용없다.
그러므로 작다고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그 근성을 따라서는 크고 작은 것이 다 보배다.

縫衣之時 短針爲要
雖有長戟 而無所用
避雨之日 小蓋是用
普天雖覆 而無所救
是故不可 以小爲輕
隨其根性 大小皆珍者也

[미륵상생경종외]

마 음이 일어남에 온갖 것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니 토갑과 고분이 둘 아니다.
삼계가 오직 한 마음이요, 만법이 오직 인식이니,
마음 밖에 법이 없으니 어찌 따로 구하랴.

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墳不二
三界唯心 萬法唯識
心外無法 胡用別求

[안신사심론 安身事心論]

대 개
이제 중도는 길이라고 할 만한 나루가 없고,
중현법문은 더욱 문이라고 할 만한 도리가 없다.
갈 만한 길이 없기에 유심으로 행할 수 없고,
들어갈 만한 문이 없기에 유행으로 들어갈 수 없다.

原夫

二諦中道 乃無可道之津
重玄法門 逾無可門之理
無可道故 不可以有心行
無可門故 不可以有行入

그 러나

대해에는 나루가 없지만 노를 저어 능히 건널 수가 있고,
허공에는 사다리가 없지만 날개를 치며 높이 날 수 있다.

이로써 알라.

도라고 할 것 없는 도, 이것이 도 아님이 없고,
문이라고 할 것 없는 문이 곧 문 아님이 없음을.
문 아님이 없기에 일마다 현묘에 들어가는 문이 되고,
도 아님이 없기에 곳곳이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매우 평탄하나 능히 가는 사람 없고
현묘한 곳으로 들어가는 문 매우 크지만
능히 들어가는 사람 없다.

然而

大海無津 汎舟楫而能渡
虛空無梯 翮羽翼而高翔
是知

無道之道 斯無不道

無門之門 則無非門

無非門故 事事皆爲入玄之門

無不道故 處處咸是歸源之路

歸源之路 甚夷而無人能行

入玄之門 泰然而無人行入瑛

[보살영락본업경소 菩薩纓珞本業經疏]

등장 인물



서당 유성호

중 3. 오갈데 없는 천애고아.
교내 일진(一陣) 씨름인 체인클럽 기술 자문책.
오토바이에 관한 최고운전 기술자.
비빔집 배달. 강희를 짝사랑함.
비빔집 아지매에게 의지해 삶. 신새벽의 선재.



강철 전성호

중 1. 강희의 남동생. 서당을 쫓아다니님.
오토바이도 배우면서
체인클럽에 들어가고 싶어 함.



갈매기 아저씨 정승천

한희 전파사 주인. 동네의 한량.
자진해서 비빔집 홍보담당.



메이화 이미화

바람난 세탁소 주인집 딸.
한 달에 서너 번은 기출.
학교는 뒤통, 그러다가 자퇴. 엄마와의 숨박꼭질.
제 칸에 나름대로 패션, 이용·미용계를 주도함.



신도회장 홍순연

외국에 유학간
싼드라(신새벽의 옛 엄지)의 엄마.
청룡 항공사의 신도 회장.



체인강 이상우

과격한 성격의 체인클럽 멤버.



체인홍 권해정

체인클럽 멤버 중의 홍일점.
강경 온건 혼성파.



강희 이혜영

야간 정보여고 2(옛 여상).
강철의 누나.
주경아독. 독실한 기독교 신자.
서당의 짝사랑.



비빔집 아지매 김진희

수다쟁이, 기분파. 외박 가솔 노숙을 일삼는
남편을 기다림. "비벼라" "디벼라" 하면서
음식솜씨가 좋아 점심·저녁때는 줄을 서야
입장가능. 번호표 발행.
신 새벽의 공양주보살 변형.



오토 짱 최의덕

삼천리 자전거 점포 오토바이 전문수리공.
서당과 죽이 맞음.



세탁소 안주인 강미정

가출한 딸 메이화를 찾아다니느라
바빠서 일을 못함. 손빨래 주차장.
메이화 아빠가 세탁소일을 도맡음.



사이카 김평삼

신 새벽의 고시생.
고시에 수차 낙방 후
늘그막에 경찰에 입문함.



체인온 손재서

온건한 성격의 체인클럽 멤버.

뒷일

연출: 채희완
기획: 최정완
무대감독: 이상현
조연출: 홍순연
음악: 최태현, 서상환
안무: 신은주
분장: 빈채영

영상: 이호근, 이광국
디자인: 김정희
사진: 이장수, 박희진
조명: 권성훈
음향: 남문철, 전성환
진행: 서지연, 심은주